교회사학 제17호 2020년 (pp. 35~77)
https://doi.org/10.35135/casky.2020.17.35

장 바세의 조화복음서《사사유편》(四史攸編)의 구조 및 특징 연구*

서원모**
김창선(교신저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Ⅰ. 들어가는 말
Ⅱ. 장 바세와 바세역본
Ⅲ. 4복음서 본과《사사유편》의 본문
Ⅳ.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사사유편》의 구조와 특징
Ⅴ.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 초엽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장 바세(Jean Basset, 白日昇 1662-1707)과 중국인 서 요한(Jean Xu 徐若翰, ?-1734)이 만든 중문 조화복음서《사사유편》(四史攸編)의 구조와 특징을 연구하고,《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과 당대의 서양의 조화복음서와 비교하는 가운데《사사유편》의 독특성을 밝히려 한다.

이 작품은 큰 틀에서 보면 4복음서의 내용을 하나로 엮은 조화복음서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당대의 전형적인 조화복음서의 형태에서 이탈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사사유편》은 복음서 간의 차이를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조화본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병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9195).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행본문들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병렬시키지 않고 하나로 제시했다. 《사사유편》은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의 복음서에서 뽑아 순차적으로 배열했으며,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애 마지막에 한 번 배열하고 대부분의 갈릴래아 사역을 벳자타 치유 이전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사유편》은 중세말 장 제르송의 《모노테사론》 이후 만들어진 16세기와 17세기의 조화복음서 전통보다는 타티아노스의 《디아테사론》 전통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사유편》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서양 조화복음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핵심어 : 장 바세, 서 요한, 한문 성경, 《사사유편》(四史攸編), 조화복음서, 《천주강생언행기략》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Ⅰ. 들어가는 말

파리외방전교회(Mission-Etrangères de Paris) 소속 장 바세 신부(Jean Basset, 白日昇 1662~1707)는 그의 중국인 조력자 서 요한(Jean Xu, 徐若翰, ?~1734)의 도움을 받아 마태오 복음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까지의 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한 최초의 중문 신약성경[이하 '바세역본'으로 줄임]을 세상에 내놓았다. 신약성경의 중문 번역은 7세기 당 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고, 17세기에는 4복음서를 하나로 엮은《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이나 주일 독서본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복음서와 설교 본문을 엮은《천주강생성경직해》(天主降生聖經直解)가 출간되었다.[1] 또한《로마 미사경본》(Missale Romanum, 1570년)을 중문으로 번역한《미살경전》(彌撒經典, 1670년)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편지들, 더 나아가서 시편과 구약 본문도 번역·수록하여 중문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17세기의 중문 성경은 "조화복음서"(Harmonized Gospel)와 같이 성경본문을 새롭게 편집한 형태나 전례본문 형태로 존재했고, 성경의 원래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바세와 서 요한의 신약성경은 마태오 복음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까지의 본문을 수록한 최초의 중문신약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바세역본은 개신교 전교자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 이에 대해서는 서원모·곽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전교자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天主降生言行紀略》과《天主降生聖經直解》와《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장신논단》49/2, 2017, 115~157쪽을 참조하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1782~1834)의 중문 성경번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바세역본에 복음서 본문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4복음서 전체를 수록한 본문이며, 또 하나는 4복음서를 하나로 엮은 조화복음서이다. 이 조화복음서는《사사유편야소기리사독복음지회편》(四史攸編耶穌基利斯督福音之會編,[2] 이하《사사유편》)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데, 모리슨이 참조한 복음서 본문은 이《사사유편》본문이었다.

《사사유편》은 조화복음서 전통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에서는 1635년에 최초의 중문조화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이하 '《언행기략》'으로 줄임]이 출간되었다.《언행기략》은 이후 여러 차례 중간되었고, 예수의 생애 도해집인《천주강생출상경해》(天主降生出像經解)[3] 외에도 이적과 치유의 행적만을 모은《천주야소성적》(天主耶穌聖跡), 또 이것의 축약판인《야소언행기략》(耶穌言行紀略)의 모체도 되었다. 그런데《사사유편》은 조화복음서라는 점에서《언행기략》과 일치하지만,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를 하나로 엮는 방식에서는《언행기략》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연구에서 밝혀지겠지만,《언행기략》은 16-17세기 서양의 조화복음서 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되나[4]《사사유편》과 유사한 체제를 지닌 조화복음서는 필자가 아는 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사유편》을 담고 있는 바세역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 역본의 번역 원리와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징주(Jing Zhu 朱菁)의 연구가 독보적이지만,[5] 그가《사사유편》의 저본을 로베르 굴레(Goullet)

2) 이 제목은 '4복음서 [기자]가 편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모아 엮음'이란 뜻을 지닌다.

3) 서원모·곽문석,〈성경 도해와 문화전수 :《천주강생출상경해》(天主降生出像經解, 1637)를 중심으로〉,《한국교회사학회지》47, 2017, 151~198쪽.

4)《언행기략》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는 서원모·김창선,〈《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의 성격 및 그 저본 규명에 관한 연구〉,《성경원문연구》43, 2018, 226~278쪽을 보라.

5) 朱菁,〈汉译新约《圣经》'白徐译本'研究〉, 북경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2014.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의 조화복음서(*Tetramonon Evangeliorum*)로[6] 제시한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 점은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스트랜데네스(Thor Strandenaes)는《사사유편》의 구조를 도표로 제시하고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사사유편》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으나,[7] 조화복음서로서《사사유편》의 독특한 성격을 규명하지는 않았다.[8]

조화복음서로서《사사유편》은 복음서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와 달리《언행기략》은 문자적 번역보다는 뜻을 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복음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주해와 해설을 크기나 판형을 달리하지 않고 삽입한 관계로 어디까지가 성경 본문이고 어디까지가 해설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언행기략》뿐만 아니라 서양의 조화복음서는 일반적으로 4복음서 안에 병행 본문이 있을 경우, 본문을 하나로 연결하여 글자 그대로 '조화본문'을 만들었다. 하지만《사사유편》은 성경 본문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4복음서를 서로 연결시켜 조화복음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다른 조화복음서와 구별된다.

본고의 목적은 조화복음서로서《사사유편》의 구조와 특징을 연구하고,《언행기략》과 비교하여《사사유편》의 독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낯선 번역자인 장 바세가 누구이며 그가 완성한 바세 역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다음(Ⅱ장), 4복음서와《사사유편》본문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Ⅲ장),《사사유편》의 구조와 특징을《언행기략》과 비교하는 가운데 분석하고자 한다(Ⅳ장).

---

6) Robert Goullet, *Tetramonon Evangeliorum [cum textu] a magistro Roberto Goullet nuper collectum et coadunatum, tres in partes divisum*, Paris, 1535.

7) Thor Strandenaes,〈The Sloan MS#3599 - An Early Manuscript of an Incomplete Chinese Version of the New Testament〉,《神學與生活》(Shenxue yu shenghuo) 6, 1983, pp.61~76.

8) 이 밖에도 慶市內田,〈白日昇漢譯聖經攷〉,《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5, 2012. pp.191~198이 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Ⅱ. 장 바세와 바세역본

1. 장 바세[9)]

1662년 리옹 부시장의 아들로 리옹에서 태어난 바세는 교양과정을 거쳐, 1677년에 당시 명성을 날린 파리 생 쉴피스 신학교(Séminaire de Saint-Sulpice)에 입학했다.[10)] 생 쉴피스 사제회(Compagnie des Prêtres de Saint-Sulpice)가 1641년에 세운 이 신학교는 프랑스 영성학파(École française de spiritualité)의 지도자인 베륄 추기경(Pierre de Bérulle, 1575~1629)의 영향을 받은 올리에르(Jean-Jacques Olier, 1608~1657), 트론송(Louis Tronson 1622~1700)의 지도를 받아 인격적인 예수 경험, 거룩의 추구, 사도적 영성을 발전시켰다. 바세는 1684년 파리외방전교회에 가입했고, 1685년 3월 루이 14세의 사절단과 함께 프랑스를 떠나 9월 말에 샴에 도착했다.[11)]

바세는 샴에서 대목구장인 루이 라노(Louis Laneau 1637~1696) 밑에서 활동했고, 1686년 8월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생 요셉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하지만 1688년 '샴 혁명'으로 전교가 난관에 봉착했고, 중국의 루이 께메네(Louis Quémener 1644~1704)가 파리외방전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로마로 떠나자 그의 자리를 잇기 위해 1689년 중국에 파견되었다.[12)] 그는 9월에 중국에 도착했으며 광둥(廣東), 푸젠(福建), 저장(浙江), 장시(江西)성에서 활동했다.[13)]

---

9) 바세와 바세역본에 대한 서술은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ionnier de l'Eglise au Sichuan précurseur d'une Eglise d'expression chinoise Corresppondance (oct. 1701-oct. 1707) Avis sur la Mission de Chine (1702)* (Paris: Éditions You Feng Libraire & Éditeur, 2012)에 의존한다.

10)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9~10.

11)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9, 11.

12)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12; https://www.irfa.paris/fr/notices/notices-biographiques/basset (2020년 10월 6일).

13)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13.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이 시기는 전교지 관할권을 두고 교황청과 프랑스 왕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1678년 교황은 모든 전교자가 대목구장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지만, 1689년 루이 14세는 전교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왕의 고해신부인 프랑스 예수회 총장과 파리외방전교회 수장에게 맡기도록 명하여 로마를 배제시켰다. 교황은 루이 14세가 임명한 주교들의 서임을 거부했고, 결국 이 갈등은 1693년 새로운 교황 인노켄티우스 12세(1615~1700)와의 타협을 통해 봉합되었다. 1696년 10월 교황은 중국에 8개의 대목구를 설립함으로써 대목구의 권위를 회복시켰으며, 바세는 교황청의 대목구 정책을 지지했다.[14)]

1693년 푸젠성(福建) 대목구장인 샤를 메그로(Charles Maigrot de Crissey, 1652~1750)가 개종자들에게 공자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중국의례논쟁이 더욱 격화되었을 때, 바세는 메그로의 편에 섰다. 그는 중국의례를 우상숭배라 여기고 제사를 반대했다.[15)] 1701년에 바세는 쓰촨 대목구로 파견되었다. 그는 1702년에 〈중국 전교에 대한 의견〉(Avis sur la Mission de China)을 작성하고 성무일과와 성경번역, 중국인 서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6)] 바세는 작은 교리교육서를 저술했고, 플뢰리의 교리교육서(Catéchisme de Fleury)를 번역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바세의 가장 주요한 업적은 마태오 복음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까지 신약성경을 번역한 일이다. 1697년 성경번역의 유용성에 대해 다른 전교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중국 교육 체계에 감탄한 바세는 중국인들이 중국 고전 대신 성경을 직접 읽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라자로회의 전교자 루이지 아피아니(Luigi Antonoio Appiani 1663~1732)를 통해

14)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12~13.

15)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14~15.

16) 이 문서는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90~203에 수록되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포교성성에 중국어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1701년 가을 포교성성은 중국을 위한 전교회의를 열고, 성경번역과 출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바세와 아피아니는 포교성성의 결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쓰촨성으로 갔다.[17] 1703년부터 바세는 바실리오 브롤로(Basilio Brollo 葉尊孝 1648~1704)와 공동으로 성경번역에 착수했다. 1704년 11월 브롤로가 사망했지만 바세는 1704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중국인 신자 서 요한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707년 11월 16일 바세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광저우 근처에서 사망하면서 성경번역은 중단되고 말았다.[18]

2. 바세역본

현재 바세역본은 모두 필사본 형태로 남아있다. 이탈리아의 카사네텐세(Casanetense) 도서관에 4복음서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까지를 담은 바세역본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캠브리지 대학교와 대영박물관과 홍콩대학교에 사본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 세 사본의 복음서는 모두 조화복음서에 해당한다. 대영박물관 본은 1737년 존 하지슨(John Hodgson)이 중국 광저우에서 발견한 바세역본을 필사한 것으로 한스 슬로안(Hans Sloan, 1660~1753)이 기증한 것이다. 홍콩대학교 본은 대영박물관 본을 다시 필사해서 모리슨이 중국에 가져왔고 자신의 번역작업에 활용했던 것이다. 캠브리지 본은 복음서만 있고, 카사네텐세 도서관에 소장된 4복음서 본문과 같은 사람이 작성한 필사본으로, 대영박물관 본이나 홍콩대학교 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다. 이 필사본은 바세의 조력자

17)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21~22.

18)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22~23.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서 요한 자신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9] 캠브리지 본은 앞부분이 일부 유실되었지만, 가장 오래된《사사유편》판본이므로 본고에선 일차적으로 캠브리지 본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본과 대조할 것이다.

바세역본은 신명을 '천주'나 '상제'보다는 '신'(神)으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중문 성경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20] 모리슨은 바세역본을 참조했고,《신천성서》(神天聖書)를 번역하면서 이 신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제판(上帝版)에 대응하는 신판(神版) 중문 성경의 전통이 확립될 수 있었다.[21]

또한 바세역본은 '성령'을 '성풍'(聖風)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deus를 신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spiritus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찾은 결과로 보인다. 바세는 요한 복음서 4:24를 神爲風礼崇之者該以風以誠而崇之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16은 蓋是風証吾風以爲神之子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4:15는 且何哉余將祈以風又以靈將咏以風又以靈로 번역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spiritus는 풍(風)으로, mens는 영(靈)으로 번역한 점이 흥미롭다. 라틴어 spiritus는 성령 혹은 하느님의 영뿐만 아니라 귀신이나 사람의 영을 가리킬 수 있다. 대체로 바세는 이런 경우에도 spiritus를 풍(風)으로 번역했다. 예를 들면 바세는 spiritus meus(나의 영, 루카 1:47), spiritui nostro(우리의 영에게, 로마 8:16)를 오풍(吾風)으로, spiritus hominis(인간의 영, 1코린 2:11)을 인지풍(人之風)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pauperes spiritu(영으로 가난한 자들, 마태 5:3)는 심빈자(心貧者), fervens spiritu (영으로 열심인 [사도] 18:25)는

19)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23~24.

20) 성경번역에 대한 바세의 기본 입장은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369~508에 정리되어 있다.

21) 설충수, 〈성경 'God'의 중문 번역 속에 나타난 정통성 논쟁 - The Chinese Recorder를 중심으로 - 〉,《한국교회사학회지》38, 2014, pp.217~246을 보라. 또한 설충수, 〈《만국공보(万国公报)》에 나타난 19세기 중국 개신교인의 신명(神名) 문제〉,《장신논단》40, 2011, pp.143~166; 일본 개신교의 신명 용어에 대한 연구로 황예렘,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성경원문연구》36, 2015, pp.231~251을 참조하라.

열심(熱心)으로, spiritus eius(그의 영, 루카 8:55)은 궐혼(厥魂)으로 번역하여 심(心)과 혼(魂)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악한 영의 경우에는 풍(風)뿐만 아니라 (사)마[(邪)魔]를 사용했다.[22]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Ⅲ. 4복음서 본과《사사유편》의 본문

1. 본문의 상호관계

이제 바세역본의 복음서 두 판본, 곧 4복음서 본과《사사유편》사이에 나타나는 이독에 대해 살펴보자. 세세한 이독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로 미루고,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사사유편》은 4복음서 본에 나온 spiritus의 번역어 풍(風)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려 했다. 대부분의 경우 성령을 나타내는 (성)풍[(聖)風], 신지풍(神之風) 등은 (성)신[(聖)神]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요한 복음서 3:7(7-3)에서[23] 自風生者風也는 自神生者神也로 나온다. 요한 복음서 4:24(14-1)는 主爲神禮崇之者該以心以誠而禮崇之로 나와, spiritus가 풍(風) 대신 신(神)과 심(心)으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마태오 복음서 12:28(8-4)의 in Spiritu Dei는 4복음서 본에는 신지풍(神之風)으로,《사사유편》에는 신지덕(神之德)으로 나온다. 이 두 구절에선 신(神)과 풍(風)이 함께 나오는데, 전자는 Deus를 주(主)로 바꾸고 spiritus를 신(神)으로 번역했다면, 후자는 spiritus를 덕(德)으로 바꾸어 중복을 피했다. 또한 마태오 복음서 12:31(8-4)의 영에 대한 모독(spiritus ... blasphemia)은 4복음서

22) 풍(風)으로 번역한 경우는 마태 12:43,45; 마르 3:11; 5:8,12,13 등이 있고 마(魔)로 번역한 경우는 마태 8:16; 마르 1:23,26,27; 3:15 등이 있다.

23) ( )는《사사유편》의 장과 단락의 구분을 나타낸다. 이 표기에 대해서는 〈표-3〉과 각주 28을 참조하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본에는 풍지대(風之謝), 《사사유편》에는 신지대(神之謝)로 나와 spiritus가 신(神)으로 번역되었다.

Spiritus가 악한 영이나 사람의 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사유편》은 풍(風) 대신 다른 단어를 찾았다. 예를 들면 더러운 귀신의 비유(마태 12:43-45[8-4])에서는 4복음서 본은 spiritus(43절과 45절)를 모두 풍(風)으로 번역했다면, 《사사유편》은 처음엔 마(魔)로, 두 번째는 생략했다. 또한 마리아의 찬가(루카 1:46-55[1-3])에서 spiritus meus(루카 1:47)는 4복음서 본에선 오풍(吾風), 《사사유편》은 오신(吾神)으로 나온다. 또한 중풍병자 치유(마르 2:1-12[7-1])에서 spiritu suo(마르 2:8)는 4복음서 본에선 기풍(己風)으로, 《사사유편》에선 기덕(己德)으로 나온다. 다만 루카 복음서 4:14(5-1)의 virtute spiritu는 4복음서 본이나 《사사유편》에 덕풍(德風)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유편》 제1장에는 성풍(聖風), 신지풍(神之風)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엘리야의 능력(spiritu ... Heliaie, 루카 1:17[1-3])은 모두 액렬지풍(厄列之風)으로 번역되었다. (성)풍[(聖)風]이 (성)신[(聖)神]으로 최초로 바뀐 구절은 《사사유편》 제3장의 시므온에 대한 언급(루카 2:25, 27[3-2])인데, 이후에는 용어 변화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사사유편》은 인명과 지명의 표기에서 4복음서 본과 약간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이다. 4복음서 본은 그리스도의 음역으로 기독(基督)을 사용한다면 《사사유편》은 일관적으로 기리사독(基利斯督)을 사용한다. 또한 루카 복음서 5:3(5-3)에서 원문에 나온 시몬[西滿]을 베드로[伯多羅]로 표기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씩 음역 표기가 달라진다(〈표 1〉).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표 1〉 인지명 표기의 변화(가나다 순)

내용	4복음서 본	《사사유편》	내용	4복음서 본	《사사유편》
갈릴래아	加利辣	加里辣	아하즈	阿加斯	阿凱斯
마르타	瑪尒大	瑪尒達	암미나답	阿閔達	阿敏達
메시아	默契	默西雅	야곱	雅哥	雅各
프누엘	飩月耳	範月耳	엘리사	厄里叟	厄利叟
벳사이다	白左達	白賽達	예리코	熱里各 日里各	熱里閣
즈불룬	撒不隆	撒布隆	유다(이스카리옷)	茹達	儒達
시리아	西列	西烈	헤로디아	黑落達	阨落達
시메온	西默翁	西黙盎	헤로데	黑落忒 黑羅忒	黑洛特
실로암	西落阨	西洛阨			

4복음서 본이나 《사사유편》이나 인지명 표기가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4복음서 본은 야곱을 아가(雅哥)이나 아각(雅各), 헤로데는 흑락특(黑落忒)이나 흑라특(黑羅忒), 예리코는 열리각(熱里各)이나 일리각(日里各)으로 표기했다. 또한 마르타의 경우 《사사유편》에서는 4복음서 본에 나온 마이대(瑪尒大)의 표기도 발견된다. 올리브 산의 경우에는 더욱 용례가 많다. 루카 복음서 21:37(23-4)에서는 4복음서 본은 알리와(遏里瓦), 《사사유편》은 아리와(阿里瓦), 요한 복음서 8:1(20-2)에서는 4복음서 본은 알리와(遏利瓦), 《사사유편》은 알리와(遏里瓦), 마태오 복음서 21:1(22-4)에서는 모두 아리와(阿里瓦)로 표기했다.

셋째, 4복음서 본에서 라삐나 메시아 등 음역한 단어를 《사사유편》은 번역해서 쉬운 말로 대체했다. 요한 복음서 1:35-51(《사사유편》 5-2)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4복음서 본에는 원문에 따라 38절에 납피역사(臘被譯師)라고 나와 라삐[臘被]라는 음역과 스승이란 뜻을 원문 그대로 밝혀준다. 하지만 《사사유편》에는 사(師)라고만 나온다.[24] 41절에는 묵계역기독(默契譯基督)라고 나와 메시아[默契]라는 음역과 그리스

24) 요한 1:49, 3:2, 3:26, 4:31, 6:25, 9:2, 11:8에도 4복음서 본에는 臘被, 《사사유편》에는 師라고 나온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도라는 뜻을 알려주지만《사사유편》에서는 기리사독(基利斯督)이라고만 나온다. 반면 42절에는 4복음서 본이나《사사유편》모두 슬법역석(瑟法譯[25]石)[케파, 번역하면 바위]라고 나온다. 또한 실로암에 대해서《사사유편》은 역언출사(譯言出使)를 생략했는데, 이는《사사유편》이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4복음서 본이나《사사유편》에는 복음서 일부가 누락된 현상이 발견된다. 루카 복음서 3:13-14a(4-3)은 4복음서 본과《사사유편》에 모두 누락되었다. 일반적으로《사사유편》은 4복음서 본문의 일부를 제외했는데, 이는 조화복음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태오 복음서 13:5-6(11-1)과 13:45-46(11-1)의 경우와 같이 4복음서 본에 누락된 부분이《사사유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사사유편》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카사네텐세 본은 바세역본 4복음서의 한 사본이고《사사유편》이 다른 4복음서 사본을 참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4복음서 본과《사사유편》은 이체자를 사용하거나 단어의 어순을 바꾸는 등 표현을 바꾸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마르코 복음서 1:19(5-4)의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雅各伯責伯陡子]는《사사유편》에선 순서를 바꾸어 責伯陡之子雅各伯라고 나온다. 여기서는 바로 이어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오므로 아버지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표 2〉는 단어의 어순을 바꾼 경우를 모아놓은 것이다.

〈표 2〉 단어의 어순 수정

4복음서 본	사사유편	구절	4복음서 본	사사유편	구절
路徑	徑路	루카 3:4(4-1)	存至今	至今存	마태 11:23(15-7)
神主	主神	루카 4:8(5-1)	植構	構植	루카 17:28(16-2)

25) 4복음서 본에는 譯 다음에 言을 추가한다.

注滿	滿注	요헌 2:7(5-6)	驢牛	牛驢	루카 14:5(17-2)
病疾	疾病	루카 7:21 (6-4)	植構	構植	루카 17:28(16-2)
輕欺	欺輕	루카 7:30 (6-4)	五餠	餠五	요한 6:9(19-1)
漏洩	洩漏	마태 9:17 (7-2)	由來	來由	요한 7:27(20-1)
一畵一點	一點一畵	마태 5:18(9-1)	紛相	相紛	요한 7:43(20-1)
全成	成全	마태 5:18(9-1)	獨我	我獨	요한 8:16(20-2)
雨降	降雨	마태 5:45(9-1)	得入得出	得出得入	요한 10:9(21-2)
弟兄	兄弟	마태 5:47(9-1)	老長	長老	마르 10:33(21-4)
兄弟	弟兄	마태 20:24(12-6), 마태 22:25(22-13)	坐在屋	在屋坐	요한 11:20(21-7)
敗殘	殘敗	마태 10:6(10-4)	泣哭	哭泣	요한 11:31(21-7)
父爲誰者	父者爲誰	루카 10:22(10-11)	光英	榮光	요한 11:40(21-7)
明律一士	一明律士	루카 10:25(10-11)	赴席	席赴	요한 12:2(22-1)
拜崇	崇拜	마태 15:25 (11-2)	韉羈	羈韉	마태 21:2(22-4)
碎餘	餘碎	마태 15:27 (11-2)	善慈	慈善	마태 21:5(22-4)
鬱憂	憂鬱	마태 17:23 (12-5)	先知依賽	依賽先知	요한 12:40(22-4)
宥容	容宥	마태 18:21(12-7)	此行	行此	마태 21:24(22-10)
爲何每瑟	每瑟爲何	마태 19:7(13-1)	乾枯	枯乾	마태 11:20(22-11)
獲刈	刈獲	요한 4:35(14-1)	先此	此先	루카 21:12(23-4)
婦寡	寡婦	루카 18:3(14-2)	對敵	敵對	루카 21:15(23-4)
榮頌	頌榮	루카 17:18(15-1)	全救	救全	루카 21:19(23-4)
貶謫	謫貶	마태 11:20(15-7)	育哺	哺育	루카 21:23(23-4)
灰塵	塵灰	마태 11:21(15-7)	迫逼	逼迫	루카 21:23(23-4)

2. 4복음서 본과 《사사유편》의 선후 관계

《사사유편》이 먼저인가, 아니면 4복음서 본이 먼저인가? 논리적으로는 4복음서를 먼저 번역하고 난 다음에 조화복음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사사유편》이 성풍(聖風)을 성신(聖神)으로 바꾼 것은 《사사유편》이 4복음서 본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바세역본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까지 성령을 성풍이라고 일관적으로 번역한다. 성풍이란 용어의 선택은 바세의 편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6] 더욱이《사사유편》제1장과 제2장에서는 風이 사용되지만, 제3장부터는 일관적으로 다른 단어로 변용되는 것은《사사유편》이 후대에 쓰였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라틴어 모두 spiritus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람 풍(風)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풍이란 한자어는 영과 신이라는 뜻은 담기 어렵다. 따라서 나중에《사사유편》을 만들 때 중국어 용법을 고려해서 성풍을 성신으로, 풍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27]

둘째로, 한문의 음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한 것도 4복음서 본이《사사유편》의 저본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한 복음서 1장에서 복음서 본문에는 라삐[臘被]와 메시아[默契]를 음역하고 번역한 뜻을 소개한다. 이 구절을 원어의 음역을 소개하지 않고 사(師)와 기리사독(基利斯督)만을 사용하는 것은《사사유편》이 후대에 중국인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4복음서 본을 개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바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쓰촨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바세의 신약성경과《사사유편》을 사용했다.[28] 셋째, 뒤에서 다루겠지만,《사사유편》은 마태오 복음서 15:29-30a(9-1)를 산상 설교를 시작할 때 사용하고, 나중에 마태오 복음서 15장 전체(11-2)를 인용할 때 다시 사용한다. 앞부분에서《사사유편》은 4복음서 본과 약간 다르지만, 뒷부분에서는 지명만 제외하고 4복음서 본과 동일하다. 이것은《사사유편》이 4복음서 본을 수정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6)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p.369-508에 나타난 바세의 성경 번역 원리를 참조하라.

27) 아마 이러한 용어 변화에는 서 요한의 역할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바세의 동의 아래 이러한 용어 개정이 실제로《사사유편》에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사사유편》이 바세가 사망한 이후 서 요한의 단독작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바세와 서 요한의 공동작업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바세는 최소한 용어 개정과 예수 사건 배열과 조화본문의 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28) 바세 사망 이후 쓰찬성 전교를 맡았던 중국인 신부 앙드레 뤼(André Ly, 1692/93-1774)의 일기에서 바세역본, 특히《사사유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Journal d'André Ly: Prêtre chinois, missio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Texte Latin* (Paris: Alphonse Picard et Fils, 1906), p.168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이렇게 보면 4복음서 본이 먼저 만들어졌고, 《사사유편》이 4복음서 본을 수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인지명 표기의 변화, 이체자 사용, 단어 어순 등의 변화는 《사사유편》의 본문의 개정 작업과 방향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4복음서 본은 인지명 표기에서도 완전히 통일된 형태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바세역본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완결된 본문이 아니며, 필사본 형태로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던 본문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4복음서를 담고 있는 카타네텐세 본에서 누락된 부분이 《사사유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사유편》은 카타네텐세 본과는 다른 4복음서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제 《사사유편》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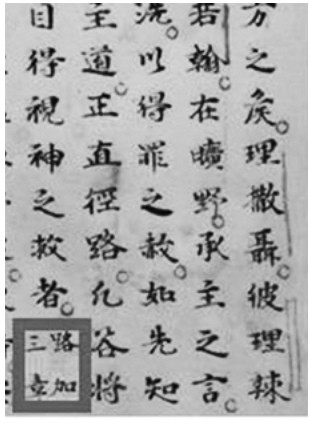
Ⅳ.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 《사사유편》의 구조와 특징

《사사유편》은 루카 복음서의 머리말(눅 1:1-4)부터 시작해서 요한 복음서의 결어(요 21:25)까지 서술하며,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전 생애를 포함한다. 《사사유편》은 모두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3장은 예수의 탄생과 유년시절을 다루고, 이어지는 4-23장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성전 파괴와 심판 예언까지의 공생애를 서술하며, 나머지 24-28장은 예수에 대한 살해 음모로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본고는 예수의 공생애를 다루는 부분(4-23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장과 항목의 구성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사사유편》은 4복음서를 하나로 엮어 예수의 생애를 제시하는데, 〈그림 1〉에서와 같이 한 복음서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 본문으로 넘어갈 때,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작은 글씨로 해당 복음서의 장을 표시하여 구분했다. 이러한 복음서의 장 표기를 하나의 단위(이하 항목으로 표기)로 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표 3〉과 같다.[29]



〈그림 1〉 복음서 장 표기

《사사유편》의 장의 길이는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그 하위 단위인 항목의 길이는 매우 다르다. 복음서 한 장,[30] 심지어 세 장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고, 한 절에 불과한 항목도 있다.[31] 이것은《사사유편》에서 복음서의 장 표기는 해당 본문이 어느 복음서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난외주 구실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이는 서양의 조화복음서 전통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사사유편》은 한 복음서의 여러 장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해주었다. 예를 들어《사사유편》20장에선 요한 복음서 7장이 끝나는 부분과 요한 복음서 8장이 끝나는 부분에 모두 복음서의 장 표기가 나타난다.[32] 하지만 산상 설교의 가르침 전체가 나오는《사사유편》9장은 예외다. 여기선 제일 마지막 부분에 "瑪竇五章六章七章"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복음서의 장을 표기한다.

또한 복음서의 장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다섯 군데 발견되는데(8-

29)《사사유편》은 장을 숫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지만, 복음서의 장으로 구분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번호는 표기하지 않는다. 〈표 3〉에서 항목 번호는 나오는 순서대로 편의상 붙인 것이다.《사사유편》을 나타낼 때에는 장과 항목을 병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4-1은《사사유편》제4장 첫째 항목을 나타낸다.

30) 11-2(마태 15장), 12-5(마태 5장), 12-7(마태 18장), 13-1(마태 19장), 15-4(루카 15장), 17-1(요한 5장), 20-1(요한 7장), 20-2(요한 8장), 21-1(요한 9장), 21-2(요한 10장)

31) 10-10(마태 6:30), 18-2(루카 11:45), 18-6(요한 6:1-2a).

32) 21-1. 21-2도 요한 복음서 9장과 10장이 모두 표기되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1, 10-5, 10-10, 14-6, 18-5),[33]첫 번째 경우(8-1)는 루카 복음서 4장을 "若望三章"이라고 표기하나, 이는 바로 전 항목(7-3)이 요한 복음서 3장이라는 점에서 일어난 착오이다. 두 번째 경우(10-5)는 마태오 복음서 8:1b-4의 한센병자 치유가 주된 내용이지만 마태오 복음서 11:1a로 시작하므로 마태오 복음서 11장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추정된다(10-5). 마르코 복음서 6장을 3장으로 표기한 경우는(10-10)는 단순 착오라고 여겨지며, 마태오 복음서 22장을 20장으로 표기한 경우도(18-5) 마찬가지이다. 《사사유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12:13-21) 다음에 여인의 탄성을 삽입한다(눅 11:27-28). 이 두 부분은 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장을 표기해야 하지만, 여인의 탄성까지의 본문을 "路加十二章"으로 표기했다(14-6).

2. 예수 사건의 배열

〈표 3〉는 《사사유편》에서 예수의 공생애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배열했는지 보여준다. 《사사유편》의 구조적 특징은 중문 최초의 조화복음서인 《언행기략》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언행기략》은 16~17세기에 서양에서 나온 조화복음서들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사유편》이 당대의 "일반적인" 조화복음서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세의 후계자인 마르틸리아(Joachim de Martiliat, 1706~1755)는, 바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의 조력자 서 요한이 《사사유편》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34]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서 요한을 중문 조화복음서를 만든 최초의 중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재로서는 저본과 저자 문제를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사사유편》의 구조적인 특

33) 〈표 3〉에서 잘못 표기된 장은 [ ] 안에 넣어서 표기했다.

34) François Barriquand et Joseph Ruellen, *Jean Basset (1662-1707)*, p.24.

징을 더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표 3〉《사사유편》과《언행기략》비교 (예수의 공생애 부분)

(*는 장 표기 오류를 바로잡은 부분을 나타냄)

사사유편				언행기략	
장	항목	복음서	내용	장	제목
4	1	루카 3:1-6	세례자 요한의 활동	2-1a	耶穌受洗示表
	2	마태 3:4-10	요한의 회개 설교		
	3	루카 3:10-12, 14b	요한의 권면		
	4	요한 1:19-26a	요한의 메시아 설교	2-3b	聖若翰再三證耶穌爲眞主
	5	마태 3:11-17	예수의 세례	2-1b	耶穌受洗示表
	6	요한 1:15-18, 30b-34, 28	요한의 증언	2-3a	聖若翰再三證耶穌爲眞主
5	1	루카 4:1-13, 마 4:11b, 루카 4:14a	예수의 시험	2-2	耶穌四十日大齊驅魔誘試
	2	요한 1:35-51	네 제자를 부르심	2-4	耶穌初招門徒
	3	루카 5:1-11	베드로의 고기잡이	2-11	命漁得魚
	4	마르 1:19-20	야고보와 요한	2-10	招四宗徒
	5	마태 4:23-25	갈릴래아 사역		
	6	요한 2:1-12a	카나의 혼인 잔치	2-5	婚筵示異
	7	마르 1:21-22a, 23-28	카파르나움 귀신들린 자	2-12a	葛發翁諸聖蹟
6	1	요한 3:22-36	요한의 사명 선언	2-7b	尼閣得睦夜訪談道
	2	루카 3:19-20	요한의 투옥		없음(2-7 다음)
	3	마태 4:12-16	갈릴래아 출현	2-9a	加理勒亞化衆愈王子疾
	4	루카 7:1b-17,19-35	백인대장의 종, 나인 고을 과부의 아들, 요한의 질문	3-2b	葛發翁又聖蹟
				3-3	納嬰聖蹟
				3-4	若翰遣使詢主
7	1	마르 2:1-13	중풍병자 치유	2-16	起癱證赦
	2	마태 9:9-34	레위를 부르심	2-17	招瑪竇爲徒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없음(2-17 다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눈먼 자와 어눌한 자	2-18	葛發翁又救淋者死者瞽者瘖者
	3	요한 3:1-21	니코데모	2-7a	尼閣得睦夜訪談道
8	1	루카 4:16-31a*	나자렛 설교	3-12	晦迹本鄉
	2	요한 4:45-54	왕의 아들 치유	2-9b	加理勒亞化衆愈王子疾
	3	마르 2:23-28	밀 이삭을 자름	2-21	論食麥穗

[Provider:earticle] Downloade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8	4	마태 12:9-50	손 마른 병자~예수 가족	2-22	瞻禮日起瘐者
9	1	마태 15:29-30a, 5:1-7:27	산상 설교	3-1a	山中聖訓
10	1	마태 7:28-29	가르침에 놀람	3-1b	山中聖訓
	2	마태 9:36-38	추수할 일꾼	3-13a	遣使傳敎定規
	3	루카 6:12-13	12제자 선택 전 기도	2-23	立十二宗徒
	4	마태 10:1b-42	12제자 선택과 파견	3-13b	遣使傳敎定規
				3-14	諭宗徒傳道耐苦
	5	마태 11:1a, 8[11]:1b-4*	한센병자 치유	3-2a	葛發翁又聖蹟
	6	마태 8:14-17	베드로 장모~병자 치유	2-12b	葛發翁諸聖蹟
	7	루카 10:1, 4b, 8-11	70제자 파견	5-1a	七十二徒行敎復命得訓
	8	마르 6:12-14	제자들의 활동		
	9	마태 14:3-11	세례자 요한의 처형		없음(3-14 다음)
	10	마르 6[3]:30*	제자들의 복귀		
	11	루카 10:17b-42	70제자 복귀~마르타와 마리아	5-1b	七十二徒行敎復命得訓
				5-2	論愛人
				5-3	賢女延主得訓
11	1	마태 13:1-54a	천국 비유	3-9	播種喩
				3-10	天國四喩
				3-11	求天國三喩
	2	마태 15장	조상들의 전통~4천명을 먹이심	4-3	論汚潔
				4-6	七餠數魚給數千人
12	1	마르 7:31-37	귀먹고 어눌한 자	4-5	加理勒亞聖蹟
	2	마르 8:22-26	벳사이다 눈 먼 사람	4-8	白撒衣達救瞽
	3	마르 8:27a, 마태 16:13-28	베드로 고백/제자도	4-9	預言受難復活
	4	루카 7:36-50	죄 많은 여인	3-5	赦悔罪婦
	5	마태 17장	예수의 변모, 둘째 고난 예언, 성전세	4-10	大博爾山顯聖容
				4-11a	下山驅魔再言受難復活
	6	마태 20:20-28	제베대오의 아들들	6-3	論訓二徒求尊位者
	7	마태 18장	어린이 영접~용서	4-13	抱孩論譙
				4-14	論赦人罪責
13	1	마태 19장	이혼~부자 청년	5-18	論夫婦
				5-23	因孩示訓
				5-24	論舍財以得天國
	2	루카 9:49-50, 57-62	제자도	2-13	訓責三徒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13	3	마태 20:1-16	포도원 품꾼 비유	5-25	論天賞
	4	마태 8:23-34	풍랑을 잠재움	2-14	渡海止風
	5	마르 5:18-20	군대 귀신 뒷 부분	4-11b	下山驅魔再言受難復活
14	1	요한 4:3-40	사마리아 여인	2-8a	西加爾乞水化人
	2	루카 18:1-8a	불의한 재판관	5-22a	論禱主貴懇而謙
	3	루카 11:5-8	간청하는 친구	5-4	論禱主
	4	루카 18:9-14	바리사이와 세리	5-22b	論禱主貴懇而謙
	5	루카 16:1-9,13-17, 19-31	불의한 청지기~부자와 라자로	5-17	論輕財忠主
				5-19	論貧善富惡死後殊報
	6	루카 12:13-2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5-5	論積天財及守貞防死候
		루카 11:27-28*	여인의 탄성	3-8a	論順主者爲親
	7	요한 4:41-43	사마리아인들의 고백	2-8b	西加爾乞水化人
15	1	루카 17:11b-19	열 명의 한센병자	4-15b	撒麻利亞愈十癩
	2	마르 10:46-52	바르티매오	6-7	葉禮閣再開三瞽
	3	루카 19:1-6, 8-10	자캐오	6-5	化富者散財
	4	루카 15장	잃은 양, 은전, 탕자	5-15	論罪人可矜
				5-16	論蕩子改過
	5	루카 13:1-9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5-6b	喻主恩寬容亟宜改圖
	6	루카 12:41-48	깨어있는 종	5-6a	喻主恩寬容亟宜改圖
	7	마태 11:20-24, 28-30	회개하지 않은 마을~내게로 오라	5-1c	七十二徒行敎復命得訓
16	1	루카 13:10-17	등이 굽은 여인	5-7	瞻禮日伸僂者
	2	루카 17:20-37	하느님나라, 사람의 아들의 날	5-21	隱示天國臨格
	3	마태 25:1-13, 31-46	열 처녀, 양과 염소	6-26	諭衆宜醒以候審判
				6-27	諭衆宜醒以候審判
17	1	요한 5장	벳자타 치유, 예수의 증언	2-19	瞻禮日起癱喻人
				2-20	耶穌自證眞主諭異端
	2	루카 14:1-24	수종병~잔치 초대 비유	5-9	瞻禮日救蠱者
				5-10	赴宴訓賓主
	3	마태 8:11-12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3-2c	葛發翁又聖蹟
	4	루카 13:31-35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5-8	哀都人
18	1	마태 23:1-10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비판	6-21	論衆勿效務外者
	2	루카 11:45	율법 학자의 놀람		없음(5-4 다음)
	3	마태 23:13-35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비판		없음(6-21 다음)
	4	루카 11:53-54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반응		없음(5-4 다음)

18	5	마태 22[20]:16-22*	황제의 것은	6-18	窮異端貢賦詰
	6	요한 6:1-2a	갈릴래아 바다 건너편으로	3-15	五餠二魚餉五千人
19	1	요한 6:3-20	오병이어/물 위를 걸으심		
	2	마태 14:28-32a, 요 6:21b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음	4-1	日搦撒爾步海聖蹟
	3	마태 16:5-12	누룩을 주의하라	4-7	論宗徒防異端
	4	요한 6:22-71	생명의 빵	4-2	論天糧指己聖體
20	1	요한 7장	초막절	4-15b	撒麻利亞愈十癩
				4-16	難期未至反化捕者
	2	요한 8장	간음한 여인~예수의 증언	4-17	反難異端赦罪婦
				4-18	自證眞主
				4-19	有罪者爲罪之役
21	1	요한 9장	나면서 눈 먼 자	4-20	胎瞽得明証主
	2	요한 10장	선한 목자	4-21	牧羊喩
	3	요한 11:1-10	라자로의 죽음	5-26a	伯大尼亞起死者于墓
	4	마르 10:32b-34	세 번째 수난 예고	6-2	途中預言受難
	5	요한 11:11-16	라자로에게로 감	5-26b	伯大尼亞起死者于墓
	6	루카 9:51b-55	사마리아 마을의 박대	4-15a	撒麻利亞愈十癩
	7	요한 11:17-57	라자로의 부활	5-26c	伯大尼亞起死者于墓
22	1	요한 12:1-8	향유를 부은 여인	6-8	宴中微示受難
	2	마르 14:8-9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3	요한 12:9-12a	라자로를 해하려는 음모		
	4	마태 21:1c-7, 요 12:12-13, 마 21:8-11	예루살렘 입성	6-9	入都城發嘆 再淨都城聖殿
	5	루카 19:39-44, 마르 11:11a	도성을 보고 우심, 성전 도착		
	6	마태 21:14-16	치유, 어린이와 젖먹이	6-10c	再淨都城聖殿
	7	요한 12:19-50	그리스인의 방문	6-12	迫言受難
	8	마르 11:11b-15a	무화과나무 저주	6-13	都城罰樹警人
	9	요한 2:14ab-22	성전 정화	2-6	初淨都城聖殿 참고. 再淨都城聖殿(6-10b)
	10	마태 21:23-32	예수의 권세	6-18	窮異端貢賦詰
	11	마르 11:20-21	무화과나무가 마름	6-14	論宗徒信主赦人
	12	마태 21:21-22	산을 옮기는 믿음		
	13	마태 22:23-34	부활 논쟁	6-19	與異端論復活
	14	마르 12:28-34b	가장 큰 계명	6-20	論宗徒信主赦人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22	15	마태 22:41b-46	다윗의 자손	6-20	論異端認主
23	1	마태 22:1-14	잔치 초대 비유	6-17	警異端昧主
	2	마태 21:33-46	포도원과 소작인 비유	6-16	警異端害主
	3	마르 12:41-44	가난한 과부의 헌금	6-22	論貧者施與之功
	4	루카 21:5-38	성전 파괴 예언/심판 예언	6-23	預嘆都城將毁
				6-24	預言審判世上前兆
				6-25	預言審判天上前兆

1) 여정: 《사사유편》과 《언행기략》의 차이는 예수의 여정을 비교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

〈표 4〉《사사유편》과 《언행기략》 공생애 여정 비교

사사유편			언행기략		
장소	구분	내용	장소	구분	내용
유대	4-1~5-2	세례자 요한/첫 제자	유대	2-1~2-4	세례자 요한/첫 제자
갈릴래아	5-3~13-5	제자 부름/혼인 잔치/나인고을 이적/중풍병자 치유/니코데모/나자렛 설교/산상 설교/12제자 선택과 파견/70제자/천국 비유/베드로 고백/변모산/부자 청년	카나	2-5	혼인 잔치
			예루살렘	2-6~2-7	성전 정화/니코데모
사마리아	14-1~14-8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2-8	사마리아 여인
예리코	15-1~16-3	바르티매오/자캐오	갈릴래아	2-9~2-18	제자 부름/중풍병자 치유
예루살렘	17-1~18-5	벳자타/지도자 비판	예루살렘	2-19~2-20	벳자타
갈릴래아	18-6~19-4	오병이어	갈릴래아	2-21~5-15	12제자 선택/산상 설교/나인성 이적/천국 비유/나자렛 설교/제자 파견/오병이어/베드로 고백/변모산
예루살렘	20-1~21-2	초막절/수전절	예루살렘	4-16~4-21	초막절
베타니아	21-3~22-3	라자로 부활/향유 부은 여인	갈릴래아	5-1~5-12	70제자/수종병자
			예루살렘	5-13-5-25	수전절/부자 청년
			베타니아/예리코	5-26~6-8	라자로 부활/자캐오/바르티매오/향유 부은 여인
예루살렘	22-4~23-4	입성/성전 정화	예루살렘	6-9~6-27	입성/성전 정화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사유편》과 《언행기략》의 공생애 여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요한 복음서와 공관 복음서의 "성전 정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 두 개의 사건으로 보느냐는 것이다. 《언행기략》은 요한 복음서와 공관 복음서의 성전 정화를 구분해서, 공생애 초기에는 요한 복음서 본문(2-6, 初淨都城聖殿), 공생애 마지막에는 공관 복음서 본문(6-10, 再淨都城聖殿)을 배열한다. 하지만 《사사유편》은 공생애 마지막에 한 번만 요한 복음서 본문을 사용하여 성전 정화를 서술한다(22-9).

성전 정화의 본문상 위치와 관련해서, 《언행기략》은 첫 제자들의 부름(2-4), 가나 혼인잔치(2-5), 성전 정화(2-6), 니코데모(2-7), 사마리아 여인(2-8)을 다루고 왕의 아들의 치유(2-9)로 시작되는 첫째 갈릴래아 사역으로 나아간다. 이는 유다-갈릴래아 가나-예루살렘-사마리아-갈릴래아로 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사유편》은 예수의 시험(《사사유편》 5-1) 이후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한꺼번에 제시하고(5-2~5-4), 바로 갈릴래아 사역(5-5)을 다루며, 첫째 이적으로 카나 혼인 잔치를 제시한다(5-6). 니코데모 이야기(7-3)는 마태오 복음서 9장의 갈릴래아에서의 활동(7-2, 마 9:9-34)과 나자렛에서의 설교(8-1, 눅 16-31a) 사이에 나온다. 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14-1)는 첫째 갈릴래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배열된다.

또한 예루살렘 방문 횟수 및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 배열에서 《사사유편》과 《언행기략》은 상당히 다르다. 《사사유편》은 니코데모 사건을 제외하면 세 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하는데, 요한 복음서 7-10장(20-1~21-2)을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초막절과 수전절의 예루살렘 방문을 한꺼번에 다루었다. 갈릴래아에서의 주요 이적과 활동, 산상 설교(9), 천국 비유(11-1), 사마리아 여인(14-1)과 바르티매오(15-2)와 자캐오(15-3) 등 예리코에서의 활동 등 공관복음서의 주요 내용이 첫째 예루살렘 방문(17-1, 벳자타 치유) 이전에 언급된다. 벳자타 치유(요 5장) 이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두 번째 갈릴래아 사역에서는 주로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뤄진다(18-6~19-4). 둘째 예루살렘 방문(20-1, 초막절) 이후에는 라사로의 죽음과 부활(요 11장) 및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요 12:1-8)가 중심 주제가 된다.

반면《언행기략》은 예루살렘 방문 전후의 활동을 비교적 균형 있게 배치한다.《사사유편》과 달리《언행기략》은 벳자타 치유(2-19~2-20)와 초막절 활동(4-16~4-21) 사이에 산상 설교(3-1), 천국 비유(3-9~3-11), 나자렛 설교(3-12), 제자 파견(3-13~3-14), 오병이어(3-15), 베드로 고백(4-9), 변모산 사건(4-10)을 배열하고, 초막절 예루살렘 방문 다음에는 72제자의 파견(5-1),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5-2), 마리아와 마르타(5-3), 수종병자의 치유(5-9) 등을 배치하고, 수전절 활동 다음에는 잃은 양과 탕자의 비유(5-15~5-16)와 예리코에서의 자캐오(6-5)와 바르티매오(6-7)이 나타난다. 반면《사사유편》은 이 모든 내용이 첫째 예루살렘 방문, 곧 벳자타 치유 이전에 나온다.

2) 예수 사건의 조직: 이제《사사유편》이 예수 사건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사사유편》은 각 복음서에서 유사한 주제를 모으거나 한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예수의 세례 (4-1~4-6): 세례자 요한의 활동에 대해 4복음서 본문을 겹치지 않게 활용하고 예수의 세례는 마태 본문을 사용한다(4-5).

② 제자들을 부르심(5-2~5-4): 예수의 시험(5-1) 이후 첫 제자들(5-2), 베드로(5-3), 야고보와 요한(5-4)으로 구분하여 한꺼번에 다룬다. 반면《언행기략》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첫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2-4)과 공관복음에 나오는 네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분리한다(2-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10~2-11).

③ 요한의 투옥과 제자 파송(6-1~6-4): 《사사유편》은 요한의 투옥으로 카파르나움에서 살았다는 서술(6-3)로 루카 본문의 갈릴래아 사역을 연결하고 감옥에서 세례자 요한의 질문까지 다룬다(6-4). 《언행기략》에선 요한의 투옥이 나오지 않지만, 서양 저본에는 니코데모와의 대화(2-7) 이후에 나온다. 반면 감옥에서의 세례자 질문(3-4)은 산상 설교(3-1)와 나인성 이적(3-3) 다음에 나온다.

④ 갈릴래아 사역(7-1~8-4): 마르코 복음서의 중풍병자 치유(7-1)에서 마르코의 순서대로 마태 본문으로 연결된다(7-2). 이후의 니코데모(7-3)와 나자렛 설교(8-1)와 갈릴래아에서의 활동(8-2 ~ 8-3)을 배열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마르코 복음서의 밀 이삭을 자른 사건(8-3)에서 마태복음의 손 마른 병자 치유(8-4)가 이어지는 것은 마르코의 순서를 따랐다.

⑤ 산상 설교(9-1): 산상 설교에서 청중의 반응은 장을 바꾸어 제10장 제자 파견의 맥락에서 나온다. 반면 《언행기략》에서 산상 설교(3-1)는 12제자 선택(2-23) 직후에 나오며, 제자 파견(3-13~3-14)은 천국 비유(3-9~3-11)와 나자렛 설교(3-12) 등이 다뤄진 다음에 나온다.

⑥ 제자 선택과 파송(10-1~10-11): 12제자의 선택과 파송(10-2~10-4)과 70제자의 파송(10-7)과 복귀(10-10~10-11)가 한꺼번에 다뤄진다. 중간에 마태복음 8장의 한센병자 치유와 베드로 장모 치유(10-5~10-6)가 삽입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세례자 요한의 처형(10-9)이 제자들의 활동(10-8)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마르코 복음서의 순서를 따른다. 반면 《언행기략》은 12제자의 선택(2-23)과 파송(3-13~3-14)과 70제자의 파견(5-1)을 멀리 떼어 놓았다.

⑦ 천국 비유(11-1): 마태오 복음서 13장의 나머지 부분(13:54b-58)은 나자렛 설교와 관련되며, 병행되는 루카 본문은 앞에서 나오므로(8-1) 제외시켰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⑧ 마태복음 15장(11-2): 마태오 복음서 14장은 오병이어와 관련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은《사사유편》제19장에 따로 다뤄진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다룬 다음(11-1), 마태오 복음서 14장은 건너뛰고 마태오 복음서 15장으로 연결되었다.

⑨ 베드로의 고백(12-1~12-3):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자(12-1), 벳사이다 눈먼 사람의 치유(12-2)에 이어서, 마르코 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마태오 본문으로 베드로의 고백(12-3)이 나온다. 이후 루카 복음서의 죄 많은 여인 이야기(12-4)가 이어지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⑩ 마태오 복음서 17장(12-5): 베드로의 고백(12-3)에서 연결된다. 하지만 이후 마태오 복음서 20장으로 건너가 제베대오의 아들의 요청(12-6)을 배열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⑪ 마태오 복음서 18-19장(12-7~13-1): 마태오 복음서의 두 장이 연속적으로 나오지만《사사유편》에서는 장을 구분한다. 마태오 복음서 19장 마지막 부분은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다음에 나오는 제자도란 주제(13-2)와 연결점을 제공한다. 이후에 포도원 품꾼 비유(13-3), 풍랑을 잠재움(13-4)을 배열한 이유는 불분명하다.《언행기략》과 달리《사사유편》은 군대 귀신을 들린 자의 치유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끝에 고침 받은 자의 요청만 서술하는데(13-5), 마르코 본문을 사용한 이유는 데카폴리스라는 지명과 관련된다고 보며, 다음에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돕는다.

⑫ 사마리아 여인(14-1, 14-7):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14-1)와 사마리아인의 고백(14-8)이 분리되어 다뤄진다.

⑬ 기도와 소유에 대한 가르침(14-2~14-6):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는 루카 특수자료인 기도(14-2~14-4)와 소유(14-5~14-6)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여인의 탄성(14-6)과 사마리아인의 고백(14-7)으로 이어진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⑭ 예리코 부근 사역(15-2~15-3): 이어서 연결되는 열 명의 한센병자 이야기(15-1)는 사마리아인이 강조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 다음에는 예리코 부근의 바르티매오의 치유(15-2), 자캐오(15-3)가 다뤄진다. 반면《언행기략》은 예리코를 접근할 때와 떠날 때 모두 세 건의 못 보는 자의 치유 사건을 다룬다. 이는 공관복음의 병행구절(루카 18:35-43; 마태 20:29-34; 마르 10:46-52)을 모두 다른 사건으로 해석한 결과다. 또《언행기략》은《사사유편》과 달리 바르티매오 사건(6-7)을 자캐오 사건(6-5) 이후에 다룬다. 복음서에서 바르티매오의 치유는 예리코에서 떠나는 길(막 10:46)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⑮ 루카 복음서 15장(15-4): 자캐오 사건(15-3)에서 루카 복음서 15장의 잃은 이를 찾는 세 비유(15-4)로의 연결은 주제를 따른다.

⑯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고(15-5~15-7): 잃은 이의 구원(15-4)을 다룬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15-5)와 깨어 있는 종(15-6)의 비유가 나온다. 이어서 마태오 복음서 11장의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 대한 경고와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초청(15-7)이 나온다.

⑰ 종말에 대한 가르침 (16-2~16-3): 먼저 등이 굽은 여인의 치유(16-1)가 나오고, 이어서 루카 복음서 17장의 사람의 아들의 날에 대한 경고(16-2)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어서 마태오 복음서 25장의 종말에 대한 비유(16-3)가 나오는 것은 주제에 따른 배열이라고 보인다.

⑱ 요한 복음서 5장(17-1):《사사유편》은 17장부터 요한 복음서의 본문을 주도적으로 활용한다. 요한 복음서 5장 다음에는 루카 복음서 14장이 나온다(17-2). 처음에 나오는 수종병자 치유(루카 14:1-6)는 연결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이후의 잔치 초대의 비유(루카 14:7-24)는 요한 복음서 5장에서 예수의 자신에 대한 증언(요한 5:31-47)은 내용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항목(17-3)은 잔치 비유와 연결되지만, 이것은《사사유편》6장에서 루카 본문을 사용한 백인대장의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종 치유 사건에서(6-4) 백인대장에게 말한 내용만 가져온 것이다. 마지막 항목(17-4)은 루카 복음서에서는 둘째 항목(17-2)보다 먼저 나온다.

⑲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비판(18-1~18-4): 《사사유편》은 마태복음과 루카 복음서를 연결해서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 다음, 세금 논쟁(18-5)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연결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 항목(18-6)은 장소 이동만 알려주며, 요한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도입하는 부분이지만《사사유편》은 장을 구분한다.

⑳ 오병이어(19-1~19-4): 요한 복음서 본문으로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 나오고(19-1), 마태오 본문에만 있는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간 이야기가 연결된다(19-2). 이어서 바리사이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19-3)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㉑ 요한 복음서 7-10장 (20-1~21-2): 오병이어에 이어 요한 복음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요한 복음서에 따라 초막절(요 7:2)과 수전절(요 10:22)에 예수의 활동이 연속적으로 서술된다.

㉒ 라자로의 부활(21-3~21-7):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을 서술하면서 중간에 세 번째 수난 예고(21-4)와 사마리아 고을의 박대 이야기를(21-6) 삽입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㉓ 예루살렘 입성(22-4~22-8): 요한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22-1). 마르코 본문에서 여인에 대한 칭찬이 삽입된다(22-2).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복음서 본문을 엮어 조화본문을 시도했다(22-4~22-5).《언행기략》과 달리 그리스인의 방문을 입성한 날에 배열한 것이 특이하다(22-7).

㉔ 성전 정화와 논쟁(22-9~22-15): 성전 정화는 요한 복음서 본문을 사용했다(22-9). 성전 정화 후 바로 예수의 권세에 대한 논쟁(22-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의 기도에 대한 서술

이 이어지는 것(22-11~22-12)은 복음서 본문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과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주제가 서로 연결된다고 본 것 같다. 이후의 논쟁 이야기는 마태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가장 큰 계명은 더 자세하게 나온 마르코 본문을 택했다(22-14).

㉕ 심판 예언(23-1~23-4): 《사사유편》 23장은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란 주제로 연결된다. 하지만 복음서의 순서와 다르게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23-2)가 잔치 초대 비유(23-1)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특이하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23-3)가 들어간 것은 마르코 복음서에선 이 이야기가 심판 예언 직전에 나오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 병행 본문: 《언행기략》은 4복음서의 병행본문에서 장소나 정황이 다른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면, 《사사유편》은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수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전 정화가 대표적인 경우이다(《언행기략》 2-6, 6-10a; 《사사유편》 22-9). 또한 예리코 주변 눈먼 사람 치유도 《언행기략》은 루카 복음서 18:35-43(6-4), 마태 복음서 20:29-34(6-7), 마르코 복음서 10:46-52(6-7)를 모두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면, 《사사유편》은 바르티매오 사건(마르 10:46-52)만 언급한다(15-2). 《언행기략》은 한센병자 치유를 두 번 수록하는데(2-12, 3-2), 한 번은 초기 갈릴래아 사역과 관련되어 예수께서 "한 동네"에서 한센병자를 만났다면(마르 1:40-45; 눅 5:12-16), 다른 한 번은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센병자가 나아왔기 때문이다(마태 8:1-4). 반면 《사사유편》은 마태오 복음서의 본문만 포함시킨다(10-5). 산상 설교에서도 《언행기략》은 마태오 복음서의 산상 설교와 루카 복음서의 평지 설교를 하나로 엮어 제시하지만(3-1), 《사사유편》은 마태오 복음서의 본문만 제시한다(9-1).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3. 조화본문의 구성

지금까지 《사사유편》을 《언행기략》과 비교하면서 《사사유편》이 복음서 자료의 배열이 《언행기략》 계열의 조화복음서 전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제 《사사유편》이 어떻게 조화본문을 구성했는지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조화복음서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병행구절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조화본문을 만들어 4복음서를 하나로 엮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4복음서를 네 단으로 편집하여 병행된 부분을 병렬시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이다. 《언행기략》은 전자에 해당하지만, 《사사유편》은 양자의 중간 형태를 지니고 있다. 《사사유편》은 기본적으로 해당 복음서의 본문을 가져왔고, 복음서 간의 차이를 조화시켜 새로운 조화본문을 만들어내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본문을 여러 단으로 병렬시키지 않고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사유편》의 본문은 한 항목 내에서는 해당 복음서 본문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사유편》에도 일부 구절을 삭제하거나 본문의 어구나 순서를 약간 바꾸거나 다른 복음서 본문을 삽입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이나 가르침을 군데군데 여러 복음서 본문을 사용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1) 일부 구절의 삭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사유편》에서는 한 항목에서 해당 복음서 본문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일부 구절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해당 본문이 다른 항목으로 나오거나 병행본문이 다른 항목에서 사용된 경우:

① 4-6 (요한 1장): 19-26a절은 앞(4-4)에 나온다. 26b-27절은 30b절과 중복되고 마태오 복음서 3:11-12(4-5)와 병행되어 생략. 29-30a절은 36절(5-2)과 유사하여 생략.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② 10-7 (루카 10장): 마태오 복음서의 12제자 선택과 파송(10-4)과 중복되는 구절은 생략.
③ 13-2 (루카 9장): 누락된 51-56절은 21장(21-6)에 나옴.
④ 14-5 (루카 16장): 12절은 산상 설교(9-1, 마 6:24)와 병행되고, 18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13-1 마태 19:9)과 병행되어 생략.
⑤ 15-7 (마태 11장): 누락된 25-27절은 감사기도(10-11, 루카 10:21-22)와 병행되어 생략.
⑥ 16-3 (마태 25장): 탈렌트 비유(25:14-30)를 제외한 이유는 알 수 없음.[35]

▶ 특별한 이유 없이 중간에 한두 절이 누락되는 경우:
① 4-3 (루카 3장): 13-14a절은 4복음서 본에도 누락되었으므로 4복음서 본의 오류가 답습됨.
② 5-7 (마르 1장): 22b절(其教蓋訓之有威不似書士也)이 생략된 이유는 알 수 없음.
③ 6-4 (루카 7장): 18절(若翰之徒備細告之且)가 생략된 이유는 알 수 없음.
④ 15-3 (루카 19장): 7절(衆見相譏曰其往居罪人之室撒勾)이 생략된 이유는 알 수 없음.

2) 본문의 변용: 복음서 본문을 변용시킨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 고찰할 수 있다.

▶ 한 항목 안에서 복음서 본문의 순서를 바꾼 경우:

4-6 (요한 1장): 요한의 증언(15절)과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비(16-18절)를 서술하고, 예수를 만난 후 요한의 증언(30-34절)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28절로 돌아와 이 일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밝

35) 은전 비유와 병행된다고 볼 수 있는 미나의 비유(루카 19:11-27)도 누락되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힌다.

▶ 도입 부분을 변경한 경우:

① 9-1 (마태 5,6,7장): 산상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오 복음서 15:29-30a(耶穌既出彼至加利辣海邊登山而坐焉衆群就之[36]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래아 해변에 이르러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니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를 넣고 마태오 복음서 5:1(上山既坐...)이 나온다. 흥미로운 사실은《사사유편》은 마태오 복음서 15장 전체를 수록하여 (11-2) 서두에 사용된 본문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9-1에서 보인 이독이 나타나지 않고 4복음서 본의 본문을 그대로 따랐다.[37] 이것은 4복음서 본이 먼저 만들어졌고《사사유편》이 나중에 4복음서 본의 본문을 수정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10-5 (마태 8[11]장): 10-4에서 마태오 복음서 10장을 끝내고 11:1a(耶穌命其十二徒畢自彼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거기서부터) 다음에 起行(일어나 가시다가)를 덧붙이고 마태오 복음서 8:1b(衆群....)로 연결된다.

③ 15-1 (루카 17장): 4복음서 본의 歷撒瑪列及加里辣之間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서, 루카 17:11b)를 及加里辣之時(갈릴래아에 도착할 때)로 변용함. 14-7에 마지막 부분은 出彼而往加里辣(거기[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다, 요한 4:43)과 연결되어 갈릴래아에 도착해서 열 명의 한센병자를 만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다른 복음서 본문 삽입:

① 5-1(루카 4장): 13절 다음에 마태오 복음서 4:11b (而使輩[38]遂進供奉

36)《사사유편》가운데 이독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 既는 생략되고, 加利辣은 加里辣로 표기되고, 焉도 생략된다.

37) 단 加利辣을 加里辣로 표기한 것은 예외이다.

38)《사사유편》에는 使輩대신 神使로 나온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之 무리가 나아가 그를 섬기도록 했다)이 삽입되고 다시 14a절(且耶穌以德風回加里剌 또한 예수께서 영의 능력으로 갈릴래아로 돌아갔다)로 이어짐.

② 12-3 (마태 16장): 12-2(막 8:22-26)를 이어 마르코 복음서 8:27a(耶穌偕徒出遊近斐理伯瑟撒肋諸都路上問徒[39]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셔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여러 마을에 가까이 가셨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를 마태오 복음서 16:13a 대신 사용함.

③ 19-2 (마태 14장): 32a절(旣上船 배에 오르니) 이후에 요한 복음서 6:21b(而舟卽至所欲泊之地 배가 곧 대기 원하던 곳에 도달했다)로 마무리하는데, 이는 19-3의 마태오 복음서 16:5(厥徒旣渡海 제자들은 바다를 건넜다)와 내용적으로 연결됨.

④ 22-4 (마태 21장): 7절 다음에 《사사유편》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이 본문은 요한 복음서 12장과 마태오 복음 21장의 본문을 하나로 엮었으며, 《사사유편》에서는 4복음서 본에 생략된 부분도 밝혀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 12:12a) 衆[1]來ㄱ柔撒冷ㄴ[2]奉瞻禮者 (마태 21:8) 或以衣鋪道 或折樹枝宴路 (요 12:13a) 且擎巴尒瑪之枝以[3]迎 (마태 21;9) 咸擧聲曰賀讚納ㄱ與達未子祝矣奉主名而臨者也賀贊納ㄴ[4]與至上哉耶穌旣至柔撒冷擧城警動曰此爲誰衆民曰此乃耶穌先知自加里辣納匝肋者

[1] add 群 [2] 柔撒冷 : om [3] 以 : 往 [4] 與~納 : om

(요한 12:12a) 무리가 예루살렘에 왔고 축일을 기념하는 자는 (마태 21:8) 옷을 길에 깔거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요한 12:13a) 또한 종려가지를 들어 맞이했다. (마태 21:9b) 모두 소리를 높여 말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송축하소서. 주의 이름

39) 《사사유편》에는 徒가 없음.

> 을 받들어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마태 21: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니 성이 소동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무리가 대답했다. (마태 21:11) 이 사람은 예수 선지자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나온 분이다.

⑤ 22-5 (루카 19장): 44절 다음에 마르코 복음 11:11a(入柔撒冷于殿而環視諸事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서 모든 일을 둘러보셨다)를 덧붙였다.

4. 다른 조화복음서와의 구조 비교

이제 마지막으로《사사유편》이 조화복음서로서 어떤 전통에 서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사사유편》과《언행기략》의 비교를 통해《사사유편》의 예수 사건 배열이《언행기략》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사사유편》이 16-17세기 서양에서 생성된 조화복음서 전통을 따르고 있는《언행기략》과는 다른 조화복음서 전통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 바세가《사사유편》을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조화복음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저본이나 어떤 특정한 본문 전통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난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사사유편》에 담긴 예수 사건 배열의 특징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고를 통해 드러난《사사유편》에 나오는 예수 사건 배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성전 정화를 공생애 말기에 한 번만 둔다.
② 벳자타 치유 이전에 대부분의 갈릴래아 사역을 배정한다.
③ 초막절과 수전절 사역을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룬다.
④ 복음서 본문을 하나로 엮기보다는 복음서 본문을 그대로 사용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장 단위로 복음서 본문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많고, 마태오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를 주로 활용한다.

⑤ 유사한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사용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이러한 배열상 특징은《사사유편》혹은 그 저본의 편집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①의 경우,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의 사역 말기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 요한 복음서는 예수의 사역을 3년 정도로 잡으면서 예수의 행로가 갈릴래아와 유대 및 예루살렘을 오간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 따른 예수의 여정은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일방적으로 나아가며 그 기간도 1년도 채 안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갈릴래아 사역을 벳자타 치유 이전에 모아놓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③과 관련하여, 가을의 감사절인 초막절과 겨울의 성전봉헌절인 수전절을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룸으로써 예수의 행적이 짧은 시간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묘사한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짧은 공관복음서의 여정과 조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④는《사사유편》이 4복음서의 병행본문을 하나로 엮어 새로운 본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복음서 본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의 경우《사사유편》은 유사한 사건이 복음서에 따라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 사건의 배열에서《사사유편》의 저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화복음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사사유편》의 저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17세기 말까지의 서방교회 조화복음서의 판본과 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는 다만 서방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교회 조화복음서는 크게 타티아노스의《디아테사론》(Diatessaron) 전통과 중세말 개혁가 제르송(Jean Charlier Gerson, 1363-1429)의《모노테사론》(Monotessaron) 전통으로 나뉠 수 있고,[40]《사사유편》은 디아테사론 전통에 더 가깝다는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디아테사론》전통은《사사유편》처럼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만 서술하고 4복음서 본문을 하나로 엮어 조화본문을 만드는 대신 복음서 본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중세까지 전해졌던 현존하는 서방《디아테사론》본문은《사사유편》과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커서,《사사유편》은 17세기에《디아테사론》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킨 조화복음서 계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장 바세는 1702년에 작성한〈중국 전교에 대한 의견〉(Avis sur la Mission de Chine)에서 중국 전교의 열매가 미진한 것을 탄식했는데, 그 원인을 신양성경의 중국어 번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사실에서 찾았다. 이런 시각에서 바세는 1703년에 중문 신약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으나, 1707년 11월 질병으로 광저우 근처에서 사망하면서 번역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결과 신약성경 전체가 아니라 애석하

40) 제르송은 자신의 조화복음서를 타티아노스의《디아테사론》과 구분하기 위해 모노테사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복음서기자들의 일치》(*De consensu evangelistarum*)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6세기 이후 조화복음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개신교에선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 가톨릭에선 겐트 주교 얀센(Cornelius Jansen, 1510~1576)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언행기략》과 가장 가까운 조화복음서인 바르톨로메오 리치(Bartolomeo Ricci, 1542-1613)의《복음서에서 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Vita D. N. Iesu Christi ex uerbis Euangeliorum in ipsismet concinnata*, 1607)는 얀센에게 의존한다. 오시안더, 얀센, 리치의 조화복음서는 예수 사건의 배열에서 제르송의 모노테사론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도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여러 종의 조화복음서가 만들어졌는데, 대체로 모노테사론 계열에 속하며,《사사유편》과 가까운 조화복음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6세기 조화복음서에 대해서는 D. Wünsch, *Evangelienharmonien im Reformationszeitalt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eben-Jesu-Darstellungen* (Berlim/New York: de Gruyter, 1983)를 보라. 17세기 조화복음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하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게도 마태오 복음서 1:1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까지만 번역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미완성의 중문 신약성경번역(바세역본)은 이전의 전례본문이나 조화복음서와 구분되는 최초의 중문 성경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세역본은 천주 대신에 신이라는 신명을 사용했고, 개신교 전교자 로버트 모리슨이 자신의 성경번역에서 바세역본을 참조하면서 신명 표기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중문 성경번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바세역본은 4복음서와 함께 조화복음서인《사사유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사사유편》은 4복음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배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4복음서의 본문을 대중이 알기 쉽게 수정했다고 추정된다. 모리슨이 참조한 복음서 본문은 4복음서 본문이 아니라《사사유편》이라는 점에서《사사유편》은 개신교 중문성경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본고는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사사유편》을 한국학계에 소개하면서, 이 작품의 구조 및 특징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은 큰 틀에서 보면 4복음서를 하나로 보여주는 조화복음서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당대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화복음서 전통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사사유편》은 복음서 간의 차이를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조화본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병행본문들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병렬시키지 않고 한 복음서의 본문만 제시했다. 예수 사건의 배열에서도《사사유편》은 벳자타 치유 이전에 대부분의 공생애 사역을 배열하며, 유사한 사건들을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사용했다는 점에서《언행기략》계열의 조화복음서와 구분된다. 바세는 현대의 성서학 연구에서 밝혀진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사이의 차이를, 또한 공관 복음서가 유사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 본고는,《사사유편》은 중세 말기 제르송으로부터 확립된《모노테사론》전통보다는 타티아노스의《디아테사론》전통에 더 가깝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본고는 바세역본의 4복음서 본과

《사사유편》의 이독을 연구하여 바세역본은 고정된 본문이 아니라 발전되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인지명 표기의 차이, 이체자의 사용, 단어 어순의 변용 등은《사사유편》이 4복음서 본을 대중이 알기 쉽도록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

바세가 서양의 조화복음서를 저본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직 바세가 이용했을 법한 서양어 저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바세가 특정한 저본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알려진 몇몇 조화복음서들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관점에 따른 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사사유편》의 저본 혹은 저작의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본고는 예수의 공생애 활동에 국한한 가운데 바세역본을 다루었으나, 탄생 본문과 수난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에 이르는 바세역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그 이전과 이후의 중문 성경과 바세역본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향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참고문헌

Aland, K. *Synopsis Quattuor Evangeliorum*, Deutsche Bibelstiftung, Stuttgart, 1978.

Barriquand, François/Ruellen, Joseph. *Jean Basset (1662-1707): pionnier de l'Eglise au Sichuan précurseur d'une Eglise d'expression chinoise Corresppondance (oct. 1701-oct. 1707) Avis sur la Mission de Chine (1702)*, Paris: Éditions You Feng Libraire & Éditeur, 2012.

Goullet, Robert. *Tetramonon Evangeliorum [cum textu] a magistro Roberto Goullet nuper collectum et coadunatum, tres in partes divisum*, Paris, 1535.

Ly, André. *Journal d'André Ly: Prétre chinois, missio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Texte Latin*, Paris: Alphonse Picard et Fils, 1906.

Strandenaes, Thor, 〈The Sloan MS#3599 – An Early Manuscript of an Incomplete Chinese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神學與生活」= Shenxue yu shenghuo 6 (1983), 61-76.

Toshikazu S. Foley. *Biblical Translation in Chinese and Greek: Verbal Aspect in Theory and Practice*, Leiden: Brill, 2009.

Willeke, Bernward H. "The Chinese Bible Manuscript in the British Museum",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4), (1945), 450-453.

Wünsch, D. *Evangelienharmonien im Reformationszeitalt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eben-Jesu-Darstellungen*, Berlim/New York: de Gruyter, 1983.

慶市內田, 〈白日昇漢譯聖經攷〉, 《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Journal of East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Asian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5, 2012 pp.191~198.
서원모·곽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전교자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天主降生言行紀略》과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쪽.
서원모·곽문석, 〈성경 도해와 문화전수 : 《천주강생출상경해》 (天主降生出像經解, 1637)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7, 2017, 151~198쪽.
서원모·김창선, 〈《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의 성격 및 그 저본 규명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43, 2018 , 226~278쪽.
설충수, 〈성경 'God'의 중문 번역 속에 나타난 정통성 논쟁-The Chinese Recorder를 중심으로 - 〉, 《한국교회사학회지》 38 (2014), 217~246쪽.
설충수, 〈《만국공보(万国公报)》에 나타난 19세기 중국 개신교인의 신명(神名) 문제〉, 《장신논단》 40, 2011, 143~166쪽.
朱菁, 〈汉译新约《圣经》'白徐译本'研究〉, 북경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2014.
황예렘,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231~251쪽.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Abstract〉

A Study of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Jean Basset's Gospel Harmony *Sishiyoubian*

Wonmo Suh(Presbyter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Changsun Kim(Presbyter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Gospel Harmony entitled *Sishiyoubian* (四史攸編) which emerged under the initiative of Jean Basset(白日昇 1662-1707) in collaboration with Jean Xu(徐若翰, ?-1734)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nd to elucidate its marked features by comparing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ue* (天主降生言行紀略) and contemporary Gospel harmonies in the West. Although this Harmony follows the western harmonized gospels in its large framework as long as it weaves the narratives of the four Gospels into one, its structure considerably deviates from that of typical Gospel harmonies of the age. Basset's Gospel harmony does not create new harmonized texts by assimilating textual differences among the four Gospels, nor display their parallel texts in the form of four columns. It selects the representative texts from one of the canonical Gospels and organizes them in sequence. It places the event of Jesus's cleansing the temple at the end of his public life once, and arranges the most of his works in Galilee before his healing at Bethzatha. In this respect, *Sishiyoubian* gets closer to the Tatian's Diatessaronic tradition than the tradition of the Gospel harmony which began with Jean Gerson's

Monotessaron and then prevailed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The Gospel harmony whos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re sufficiently similar to Basset's harmonized Gospel to regard it as its possible original has not been found, but requires further research.

Keywords : Jean Basset, Jean Xu, Chinese Bible, *Sishiyoubian*, Gospel Harmony,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ue*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Monday, June 14, 2021 4:20 PM

투고일 : 2020.11.12
심사일 : 2020.11.27
게재확정일 : 2020.12. 3